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책임편집 : 김명준 디자인 : 김령 길림신문

동북 진흥을 중한 협력의 새 지평으로

— 투명접착필름기업 CTMS 이창용 사장의 장춘 인연

중국 길림성 중한(장춘)국제협력시범구(이하 '중한시범구')에 입주한 중한 합자기업 CTMS(长春天明盛)에 들어서자 광학용 투명접착필름(OCA) 생산라인이 눈에 띈다.

빠르게 움직이는 코팅 기계가 얇은 필름 우에 투명 접착액을 균일하게 바르고 있다. 접착액이 도포된 필름은 이후 여러 공정을 거쳐 투명하고 접착성이 우수한 광학용 투명접착필름으로 완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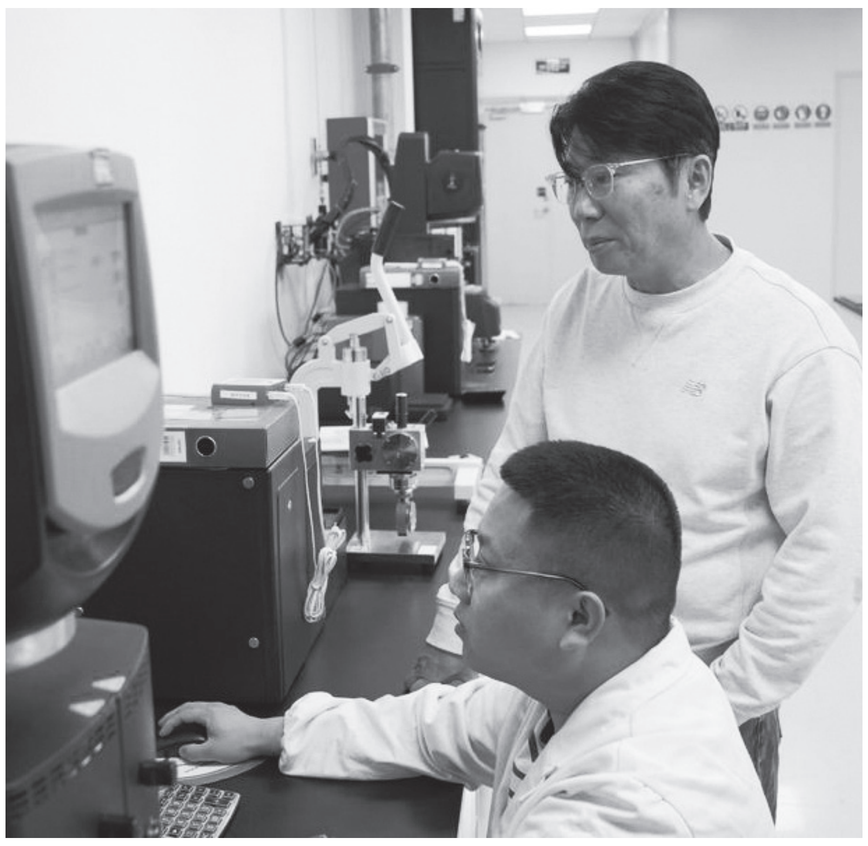
"겉보기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활용 범위가 아주 넓어요. 터치스크린(触摸屏)의 핵심 소재이기도 하죠." 이창용 CTMS 사장의 말이다.

장춘에 오기 전 이창용은 한국 TMS의 최고기술책임자(CTO)였다.

"2018년까지는 삼성 등 한국 기업과의 업무가 많았으나 주력 시장이 변화되면서 현재 업계의 가장 큰 시장은 중국이예요. 이 또한 우리 회사가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리유죠."

그의 회사는 약 4년전 중국 여러 도시를 둘러본 끝에 장춘에 투자해 새로운 생산라인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으며 중한시범구에 입주한 첫번째 한국기업으로 2023년 1분기에 완공 및 사용 승인을 받았다. 회사는 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추었으며 높은 청정 수준을 자랑한다.

장춘은 탄탄한 산업 기반을 가진 도시로 새 중국 창건 이후 최초의 광학연구소가 설립된 곳이자 중국 최초의 광학유리와 전자현미경 등이 탄생한 곳이다.



▲ 이창용 사장이 연구쎈터에서 엔지니어와 교류하고 있다.

이창용은 "장춘의 발달된 무역 수출수단과 인문지리적 특성 또한 기업이 입주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최근 수년간 중국이 '새시대 동북 전면 진흥 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장춘시는 광전자 정보 산업을 집중 육성해왔다. 지난해 기준 장춘의 광전자 정보 산업 총생산액은 900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장춘에 대해 이창용은 숙련된 산업인력과 대학의 연구 자원이 풍부하고 행정 환경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0년 6월말에 설립된 중한시범구는 210평방키로메터의 규모를 자랑하며 첨단장비 제조·대건강·광전자정보 등 3대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한다. 중한시범구가 올해 추진중인 5,000만원 이상 규모의 프로젝트는 52개로 총투자액이 281억 2,900만원에 달한다.

그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체제 아래 중한 산업망 협력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며 동북 진흥 전략에 따른 두가지 혜택으로 장춘·길림·두만강 류역 개발 회랑을 통한 동북아 시장 확장,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기반 현지 공급망 구축을 꼽았다. 기술과 시장의 시너지 효과가 중한 경제협력의 모범이라는 설명이다.

프로젝트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중한시범구는 행정 승인 대행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 및 프로젝트 건설에 전 과정을 아우르는 써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창용은 생산라인 건설에 필요한 심사·승인 가속화부터 경영중 발생한 문제의 신속 해결까지 정부가 밀착형 써비스를 제공해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30% 단축했다고 전했다.

현재 CTMS는 삼성·경동방(京东方·BOE)·화성광전(华星光电) 등 유명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회사가 개발 및 생산하는 유기발광다이오드(有机发光显示器·OLED)용 투명접착필름 제품이 이들 기업에 납품되고 있다.

CTMS는 3년 안에 장춘 기지를 년간 3,000만평방메터 규모의 광학용 투명접착필름 연구개발생산쎈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중한 대학들과 협력해 공동 연구실을 설립하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차량용 곡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응용 분야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글 김명준기자
/ 영상·사진 CTMS

30여명 국내외 탐방단, 길림 '행복 비결' 전파

일전, 국내외 미디어와 인터넷 인플루언서로 구성된 30여명의 '감지 행복 중국행' 탐방단이 7일간의 길림 심층 탐방을 마쳤다. 탐방단은 장춘, 송원, 료원, 집안, 장백산 등지를 차례로 방문해 생태, 산업, 문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길림 '행복 비결'을 종합적으로 탐구하며 생동한 이야기들을 외부에 전파했다.

장춘에서의 첫 방문지는 길림대학 지질박물관, 이곳에 전시된 공룡 화석과 광물 표본 등은 탐방단 성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그들은 이를 사진에 담으며 기록에 열중했다. 황대년기념관에 들어서자 탐방단 성원들은 "중화를 부흥시키는 것은 우리 세대의 책임이다."라는 황대년교수가 동학들에게 남긴 감동적인 졸업 증언(赠言)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설명에 집중했다. 제일자동차해방(一汽解放)과 중국제일자동차 NBD 본부에서 탐방단 성원들은 자동화 생산라인과 지능형 로보트의 작업 장면에 모두 놀라워하며 생산공정과 기술혁신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장춘의 중요한 방문지인 위만주국중앙은행 본점 옛터, 인민광장 쏘련홍군렬사기념탑, 신민대가 력사문화거리 구간은 독특한 력사적 가치로 탐방단 성원들에게 길림을 리해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다.

위만주국중앙은행 본점 옛터는 일본제국주의가 중국 동북에 금융 침략을 실시한 력사적 증거지로 길림의 고통과 사명감, 책임감을 명기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현재 이곳은 과거와 현재를 련결하는 문화적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인민광장의 쏘련홍군렬사기념탑 앞에서 탐방단 성원들은 공손한 태도로 해설을 들었다. 올해는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쑈전쟁 승리 8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기념탑은 중쏘 량국 인민이 나란히 싸운 력사적 증거이다. 22년 만에 인민광장이 재개방되면서 붉은 기억이 새시대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신민대가 력사문화거리 구간은 탐방단으로 하여금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다. 총길이가 1,445메터인 이 거리는 길림성 최초의 '중국 력사문화명가(名街)'로 '14년 항전'과 '1945년 중국인민들이 위대한 항전 승리를 취득한 해'라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거리를 따라 늘어선 '4부 1원 1아(四部一院一衙)' 력사 유적들은 도시의 백년 력사를 고스란히 련결하고 있다. 오늘날 이곳은 장춘 문화관광의 핵심 기점으로서 전 성의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고 있다.

탐방단 성원들은 이 세곳에서 장춘의 도시 기억을 체험했 뿐만 아니라 력사 전승과 발전 혁신 속에서 드러나는 길림의 진심을 느꼈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전파 형식을 통해 길림의 '력사적 온도'와 '발전 활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을 약속했다.

/ 길림일보

한국치과기공학회 중한(장춘)국제협력시범구 방문

일전, 한국치과기공학회 회장이자 유정치과기공소 대표리사인 송두빈과 유일치과기공소 대표리사 이창화 일행이 중한(장춘)국제협력시범구(이하 '중한시범구')를 방문하여 치과 의료 산업 협력, 기술교류 및 산업단지 건설에 관한 사항을 론의했다.

한국치과기공학회는 1966년 설립된 비영리 조직으로 50년 이상의 력사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 치과기공사의 전국적 산업 조직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학회의 주된 목적은 국민의 구강 건강 수준 향상 및 치과기공 분야의 학술 연구와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 보호 및 교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회원은 한국 각지의 치과기공사 및 관련 기관으로 구성되였다.

유정치과기공소는 뛰여난 기술력과 제품 품질로 한국 치과 기공 분야에서 상위 5위 안에 자리잡고 있으며 고정성 보철물(固定修复体), 가철성 보철물(活动修复体), 치아 교정 장치 및 이갈이 방지 장치 등 다양한 제품을 제작하고 있다. 회사 제품은 한국 치과의료기관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유일치과기공소도 치과 기공 제품 연구 개발과 시장 써비스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중요한 업체이다.

좌담회에서 중한시범구 도시관리국 부국장 완수명은 중한시범구의 산업 계획, 국제협력 플래트홈 구축, 의료건강산업 육성 등 다양한 장점에 대해 설명했다. 송두빈 회장은 중한시범구의 산업 립지와 발전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 치과 기공 산업의 발전 현황과 기술적 우위, 미래 추세를 소개했다. 그는 보철물 정밀도 제어, 소재 연구 개발 혁신, 맞춤형 써비스에서의 경쟁력을 강조하며 중한시범구가 우수한 산업 기반과 정책적 지원을 갖추고 있어 량측의 협력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창화 대표는 중한시범구의 플래트홈을 활용하여 기술 공유, 생산능력 협력, 시장 확장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탐색하고 중한시범구 치과 의료 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향후 중한시범구 도시관리국은 이번 시찰을 계기로 한국 치과기공기업들과의 대화 협력을 가속화하고 기업의 현지 진출 요구에 맞는 정책 지원과 써비스 보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 중한(장춘)국제협력시범구

중한 협력 프로젝트

Dr. GRAFT 두피 과학 전문 브랜드

중한 경제협력을 선도하고 상호 투자 및 무역 활성화, 기업간 교류 확대를 촉진하고자 길림신문사는 KOTRA 장춘무역관과 공동으로 '중한 협력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중한 협력 프로젝트'는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에 효과적인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현지 투자자 및 파트너들에는 우수한 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고자 한다.

소개된 제품과 협력 의향이 있거나 하반기 '중한 경제 관련 박람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KOTRA 장춘무역관(위챗계정: KOTRA 长春贸易馆)으로 직접 련락하여 구체적인 협상 및 상담을 진행하기 바란다. 전문 상담을 통해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브랜드 소개]

Dr. GRAFT는 한국 연세대학교 Severance 의학원 성형외과 전문의들과 KAIST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공학과 교수들이 공동 개발한 두피 과학 전문 브랜드이다. 이 브랜드는 피부조직 재생 기술을 핵심으로 탈모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수술후의 관리 및 홈케어까지 제공하는 전 라인 제품이다.

ARANEA 탈모 방지 단백질 케어 샴푸

MCB-Formula TM 성장인자 조합물과 세계 최초의 거미실크 단백질(蜘蛛丝蛋白)이 결합된 탈모 방지 샴푸이다. 천연 크기의 거미실크 단백질은 천연 추출물중 가장 우수한 보습력을 자랑하며 손상된 모발을 효과적으로 윤기 있게 개선한다. 탁월한 흡착 성능은 성장인자의 흡수를 향상시켜 두피 개선 효과를 극대화한다.

/ KOTRA 장춘무역관